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14	·	·	·	14
신 문	14	·	·	·	14
TV(방송)	·	·	·	·	·
기 타	·	·	·	·	·

경기도소방
화성소방서

언 론 보 도 사 항 목 차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이틀만에 살린 소중한 생명	경기도민일보	·	1
2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현장출동 이틀만에 소중한 생명 살려	경기매일	·	2
3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로 생명 살려	경기방송	·	3
4	새내기 구급대원 심정지 환자 생명 살려	뉴스통신	·	4
5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심정지 환자 소생시켜	도민일보	·	5
6	화성솝아서, 새내기 구급대원히 현장 출동 이틀만에 살린 소중한 생명	중도일보	·	6
7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이 투입 이틀만에 소중한 생명 구해	중앙신문	·	7
8	심정지 환자 살려낸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화성신문	·	8
9	화성소방서 새내기 소방사, 김수현 '소중한 생명' 살렸다.	화성 인터넷신문	·	9
10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현장출동 이틀만에 소중한 생명 살려	경기매일	002	10
11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이틀만에 살린 소중한 생명	경인매일	010	11
12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심정지 환자 소생시켜	도민일보	006	12
13	이형철 본부장, '설명절' 동탄메타폴리스 점검	아시아경제	·	13
14	이형철 경기소방본부장, 동탄 메타폴리스 찾아 '안전컨설팅'	세이프투데이	·	14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이틀만에 살린 소중한 생명

화성=홍왕현기자 | 승인 2020.01.16 09:11 | 댓글 0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월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장 이경준,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하였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현장출동 이틀만에소중한 생명 살려

김창주 기자 | 승인 2020.01.16 17:52 | 댓글 0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월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장 이경준,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했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로 생명 살려

입력 : 2020-01-16 16:16

쓰러진 심켜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



신임 소방관 심정지 환자 소생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습니다.

이날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하였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습니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내기 구급대원 심정지 환자 생명 살려

화성소방서 김수현 소방사, 현장 출동 이틀 만에 심정지 환자 살려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현장 출동 이틀 만에 심정지 환자 생명 살린 김수현 소방사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새내기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이틀 만에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13일 팔탄면 지철리 한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이경춘 소방장, 이정목 소방교, 김혁 소방사,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실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 재세동을 실시했다.

환자는 의식을 되찾아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지난해 12월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처음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면서 각오를 밝혔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응급환자의 소생 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심정지 환자 소생시켜

용만중 기자 | 승인 2020.01.16 15:44

(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월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하였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만중 기자 dmilbo@naver.com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이틀만에 살린 소중한 생명

승인 2020-01-16 09:16 수정 2020-01-16 09:16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 모습.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월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장 이경훈, 소방교 이정욱,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용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하였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이기환 기자 ghl5510@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투입 이틀만에 소중한 생명 구해

김삼철 기자 | 승인 2020.01.16 23:11



심정지 환자 살린 새내기 김수현 소방사.(사진제공=화성소방서)

화성소방서는 팔탄면 지월리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13일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하였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 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심정지 환자 살려낸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현장 투입 이틀만에 소중한 생명 구해

서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09:40]



▲심천 투입 이틀만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한 김수현 화성소방서 소방사. © 화성신문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 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13일 팔탄면 지월리 소재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의 생명을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했다.

이날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했다.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날 2019년 12월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생명을 구했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화성소방서, 새내기 소방사, 김수현 '소중한 생명' 살렸다

실전 같은 응급처치교육과, "선배들의 지도덕분 이다" 밝혀

화성인터넷신문 ✉ | 기사입력 2020/01/17 [05:23]



© 화성인터넷신문 "화성 새내기 김수현 소방사, 실전같은 교육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도 '선배님들 덕으로 돌려'.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장래)는 지난 1월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 화성인터넷신문 '화성소방서 화이팅!'

이날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하여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 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장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매일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002면 종합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현장출동 이틀만에소중한 생명 살려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월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했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京仁每日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010면 종합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이틀만에 살린 소중한 생명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소방장 이경준,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하였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김수현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교육과 선배들의 지도 덕분에 실수 없이 처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심폐소생술 등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전에 활용 가능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 최규복기자

도민일보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006면 사회

화성소방서, 새내기 구급대원 심정지 환자 소생시켜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월 13일 팔탄면 지월리의 공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정확한 의료지도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 소방사 김혁, 박규남, 김수현, 구급대원은 119재난종합상황실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의 의료지도 하에 직장 동료가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재세동을 실시하였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아 전문의의 의료지도 하에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이번 출동에서 2019년 12월 27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수현 소방사가 실무적응 교육과 구급교육을 마치고, 구급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만에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용만중 기자

이형철 본부장 '설 명절' 동탄메타폴리스 점검

초고층, 키즈카페, 판매시설 등 건축물 안전대책 점검

2020년 01월 17일 (금) 07:29:1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1월16일 오후 설 명절 대비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성시 반송동 소재 동탄메타폴리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동탄메타폴리스는 지상 66층, 지하 5층, 건축면적 3만4900㎡, 연면적 46만3047㎡의 초고층 건축물로써 30층마다 1개소의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 등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비태세 점검으로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조창래 화성소방서장, 총괄재난안전관리자 구대영 관리소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형철 본부장은 건축물의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대형마트, 키즈카페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 확인을 통해 화재 발생 대비 종합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수신기, 비상방송,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유사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계자에게 평소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를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119 신고 등 관계인에 의한 적절한 초동조치와 이용객들의 인명대피가 우선"이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빈틈없는 예방활동 등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줄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이형철 경기소방본부장, 동탄 메타폴리스 찾아 '안전컨설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16일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를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형철 본부장이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동탄 메타폴리스를 방문해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탄메타폴리스는 지상 66층, 지하 5층, 건축면적 3만4900㎡, 연면적 46만3047㎡의 초고층 건축물로 30층마다 1개소의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 등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날 컨설팅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재난 대비태세 점검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컨설팅에서 건축물의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대형마트, 키즈카페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 확인을 통해 화재 발생 대비 종합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수신기, 비상방송,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도 살폈다.

이 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119 신고 등 관계인에 의한 적절한 초동 조치와 이용객들의 인명대피가 우선"이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